CDP
DISCLOSURE INSIGHT ACTION

2023 CDP Best Practice

기후 리더십 블랙박스

March 2024

CDP Korea Report 2023

Korean partner to CDP and
Report Author

KOSIF 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

Report Sponsor

신한금융그룹 HYOSUNG

Korean Partner to CDP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KoSIF)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이하 KoSIF)은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 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CDP Korea Climate Change and Water Report 2023

Writer: 이다연, 김정석, 김현정, 서승연, 남나현, 정병하, 김태한, 이종오, 정유민
Design & Publication: 화소

Contents

02 신한금융그룹
04 한국중부발전
06 현대자동차
08 효성첨단소재
10 효성화학
12 KB금융그룹
14 기아
15 하나금융그룹
16 현대건설
17 현대글로비스
18 현대로템
19 현대위아
20 SK하이닉스
21 About CDP

Important Notice

본 보고서 내의 자료는 CDP Worldwide(CDP)에 통보 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고서 내의 CDP 또는 공저자의 자료를 이용한 재편집 또는 재판매 권한을 부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본 보고서상의 자료를 재편집 또는 재판매 하기를 원할 경우, 반드시 CDP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CDP 2023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응답 데이터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KoSIF 또는 CDP는 보고서상의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 또는 완전성을 대변하거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을 권고하며, KoSIF 및 CDP는 해당 행위에 대한 어떠한 주의 의무 및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고서내의 모든 정보와 전망은 리포트 작성 시점의 KoSIF 및/또는 CDP의 판단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경제, 정치, 산업 그리고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외부원고는 해당저자 및 기관의 개별적 의견이며, CD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KoSIF, CDP, 협력기관, 제휴 회원사 및 해당기관의 주주, 구성원, 파트너, 임직원들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에 언급된 기업의 주식은 일부 주 또는 국가에서 구매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의 가치와 수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CDP' 및 'CDP Worldwide'는 자선단체(no. 1122330)와 보증책임회사(no. 05013650)로 영국에 등록되어 있는 CDP Worldwide를 지칭합니다. 한국 내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CDP의 로컬 파트너로서 CDP한국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무처를 맡고 있습니다.

© 2023 CDP Worldwide. All rights reserved.

신한의 100%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에너지에 진심인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2023년 데이터센터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실행,
약 28천톤의 배출량을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직원이 함께한 캠페인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인 녹색금융 확대, 금융배출량 관리 등
국가의 녹색 전환을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본 페이지는 신한금융그룹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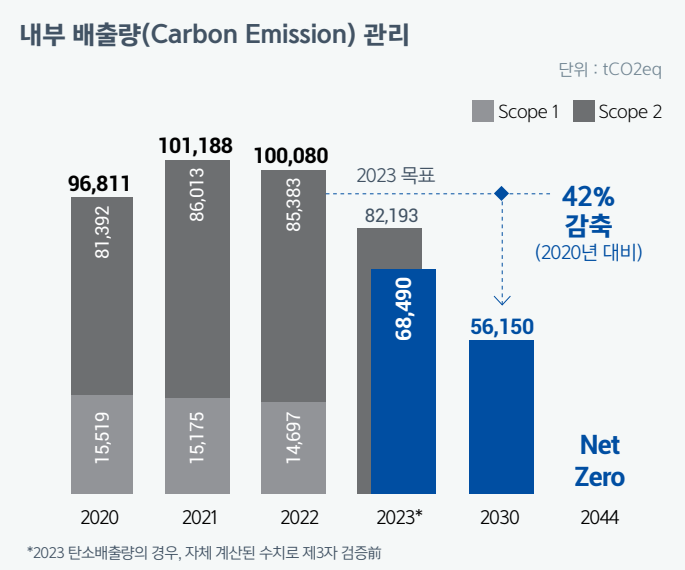
에너지에 진심인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은 2023년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실행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현재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솔선수범하고자 했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전직원이 함께하는 「신한 아껴요 캠페인」을 통해 에너지 절약 운동을 실시, 직원이 문화적으로 ESG를 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절약 운동은 전기사용량, 차량 운행, 용지, 일회용컵 사용 등을 줄이자는 내용으로, 그 에너지 감축 성과만큼 에너지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고 추진되었습니다. 약 6개월 간 총 2천MWh에 해당하는 전기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 감축 노력 뿐 아니라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한국동서발전과 REC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전력 입찰을 통한 녹색프리미엄 전력 구매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28천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과학기반감축목표(SBT)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신한자산운용이 한화컨버전스와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위한 합작법인(JV)를 설립하는 등 향후 신한이 배출량 감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다각화 된 실행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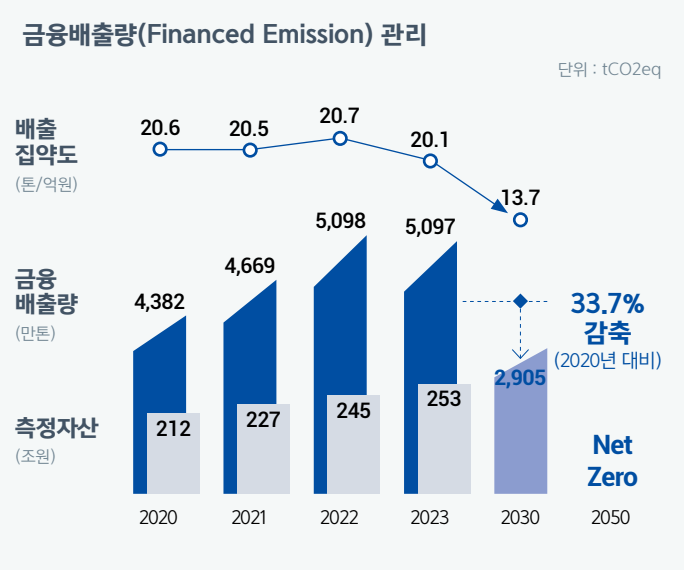
내부배출량 (Scope 1+2)

'30년까지 내부 배출 42% 감축,
'44년까지 Net-Zero 달성



자산의 금융배출량 (Scop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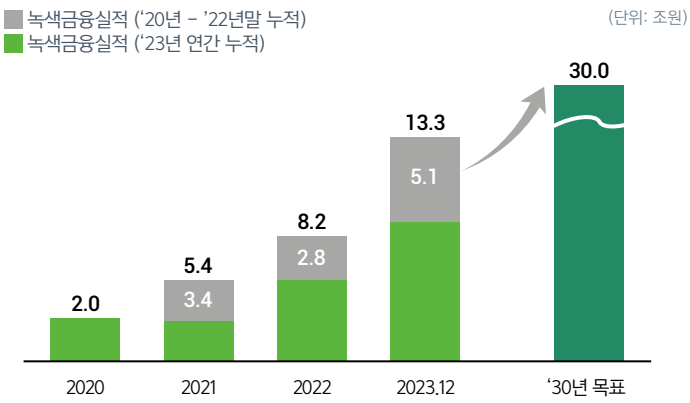
'30년까지 금융배출량 33.7% 감축,
'40년까지 금융배출량 59.5% 감축,
'50년까지 Net-Zero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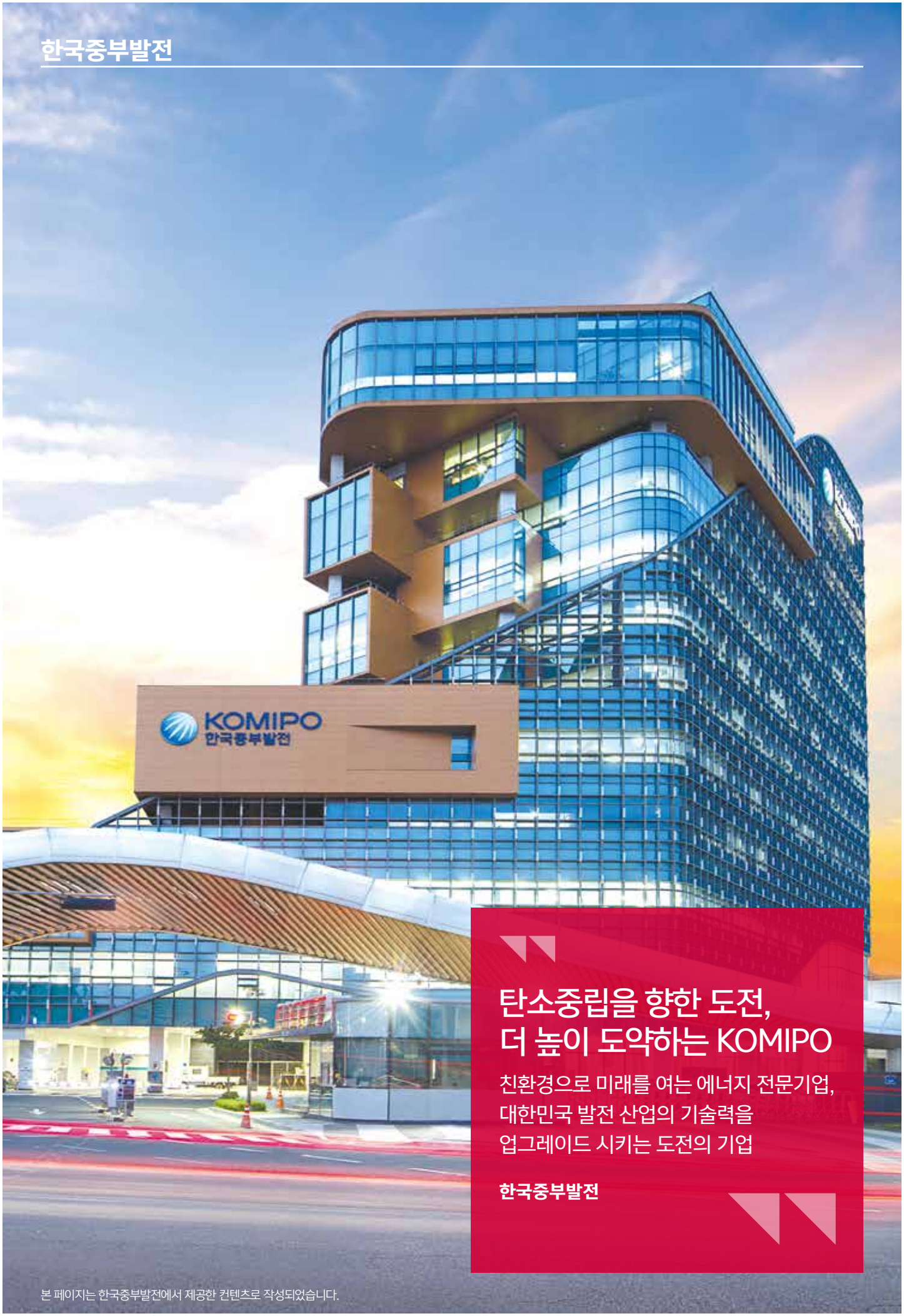


누구보다 먼저! 녹색금융

신한금융그룹은 2020년 녹색금융 관련 금융 목표를 수립하여 2030년까지 신규 누적 30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업 및 녹색 전환을 위한 기업 대출 증대 등으로 목표 대비 150%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총 누적 13.3조원으로 30년 목표에 41.7%의 진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올 해도 금융이 할 수 있는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국가의 저탄소 전환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 더 높이 도약하는 KOMIPO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
대한민국 발전 산업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전의 기업

한국중부발전

본 페이지는 한국중부발전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을 향한 도전, 더 높이 도약하는 KOMIPO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
대한민국 발전 산업의 기술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전의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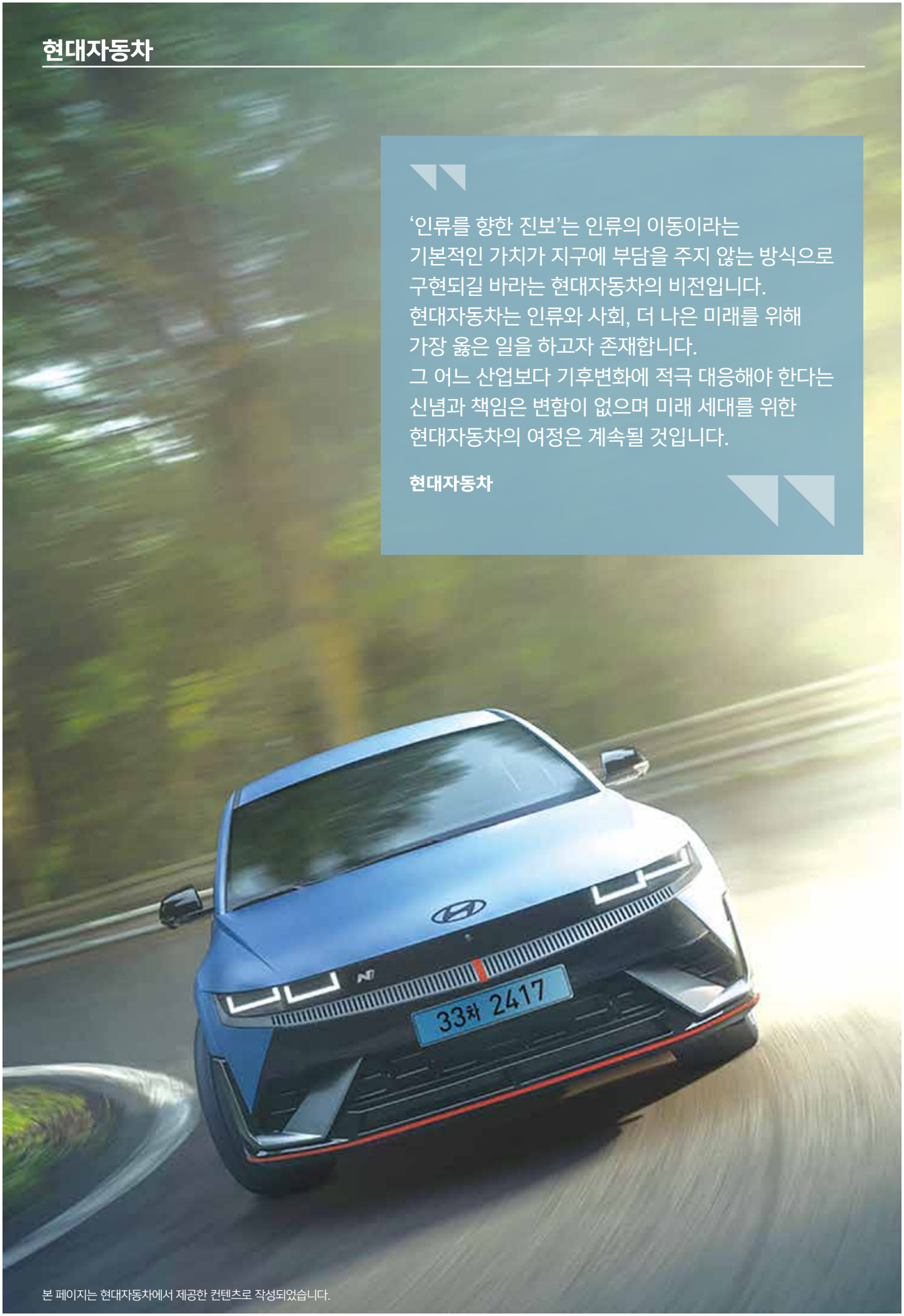
한국중부발전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술력을 바탕으로 화력발전(석탄, LNG, 중유)과 풍력, 태양광, SRF, 연료전지 발전 등을 통해 국내 전력의 7.8%를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표준석탄화력 모델을 수출하여 찌레본, 탄중자티 화력, 왐푸 수력 등의 발전소를 통해 자바섬 전력공급의 6%를 담당, 이외에도 스웨덴, 스페인, 미국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여 "KOMIPO"라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새롭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친환경으로 미래를 여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회사 비전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탄소, 사회적 책임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의 세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깨끗한 에너지로 국민이 신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회사 구현'이라는 환경 비전과 '2050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청정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수소의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세계 최초로 19만평의 보령발전본부 회처리장 부지를 이용한 연간 25만톤의 수소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블루수소 생산 플랜트 사업, 암모니아 혼소 및 수소 가스터빈 기술 실증, 150MW급 CCUS 실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자 대기분야에서는 화력발전소 환경설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교체하여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안전한 발전소 운영과 물 분야에서는 "Rewater 70"이라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25년까지 재이용률 70% 달성이라는 국내 최고의 목표를 설정하여 하수 재이용수 도입, 우수 재이용 설비 설치 등을 통해 700만톤의 수자원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상생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6,000평 규모의 발전소 부지 및 온배수를 활용하는 '에코-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수익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인공어초 설치, 염생식물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존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고 시도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에너지 산업의 선두에서 노하우와 경험을 쌓으며, 국민의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중부발전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인의 발전에 든든한 에너지가 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류를 향한 진보'는 인류의 이동이라는
기본적인 가치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되길 바라는 현대자동차의 비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인류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가장 옳은 일을 하고자 존재합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과 책임은 변함이 없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

본 페이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감축뿐만 아니라 외부 감축사업을 통해 전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급망, 사업장, 차량운행 등 주요영역별 전략을 기반으로 탄소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이동이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치를 두고 '인류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비전을 따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2021년 9월 IAA 모빌리티에서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통합 솔루션'을 발표했습니다. 클린 모빌리티Clean Mobility, 차세대 이동 플랫폼Next generation Platform, 그린 에너지Green Energy를 핵심으로 전동화 역량 확대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주요 관리영역차량운행, 사업장, 공급망을 포함하여 모빌리티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공급망 |

ESG 경영이 더욱 중요시 되면서 협력사의 품질과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력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023년 CDP Supply Chain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국내 1차 협력사와 함께 탄소정보 공개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사 탄소배출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협력사들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데이터를 산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그룹화된 협력사별로 탄소감축 활동을 진행하고, 기술교육 및 임직원 인식 제고를 비롯한 공급망 협업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 동반 상생 경영활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탄소배출 비중이 높은 원소재 업체의 경우에는 소재 재활용 및 신소재 활용 확대 등 협의체 정례화를 통해 유기적 협업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 사업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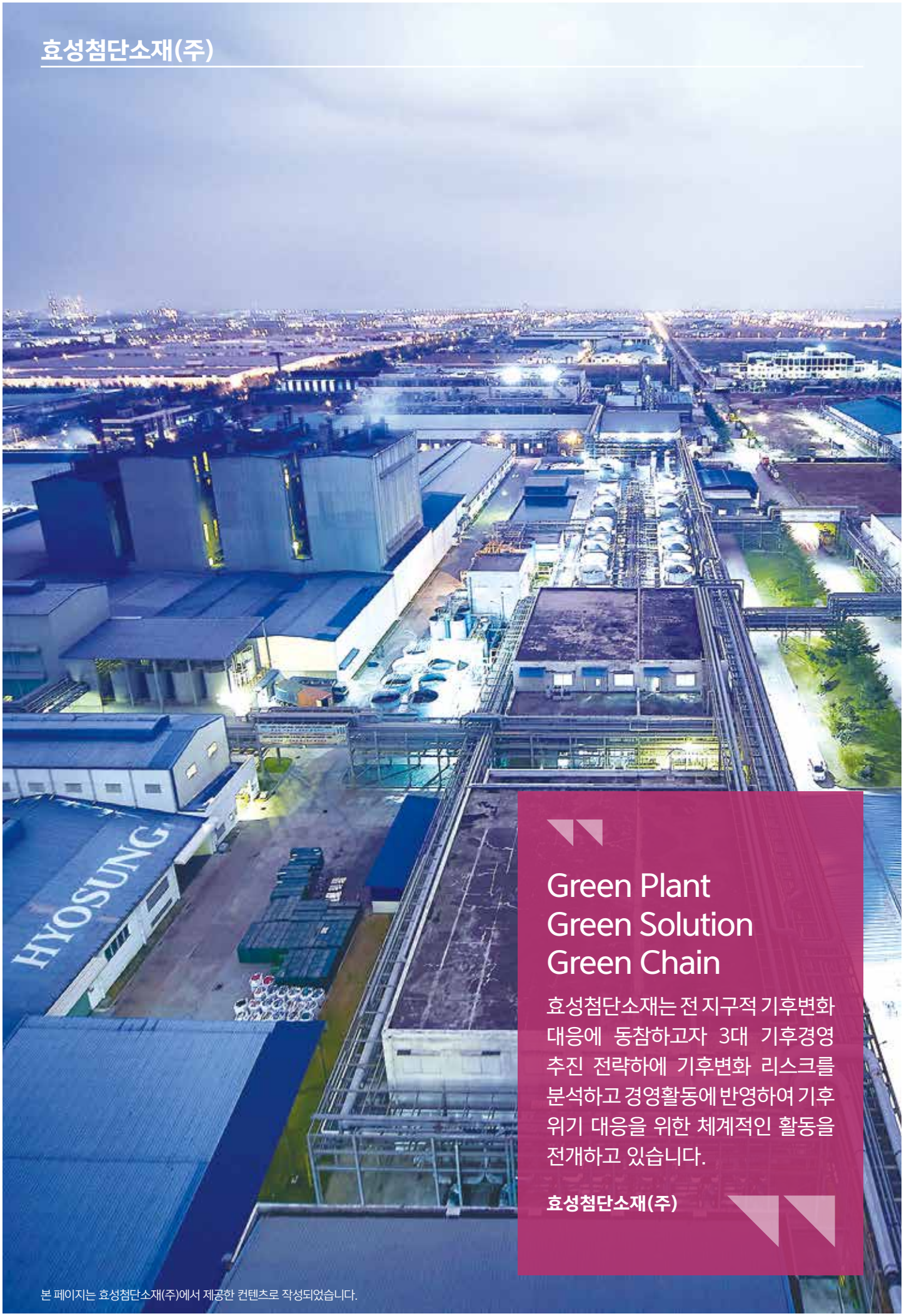
현대자동차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방향성과 목표를 적극 지지하며, 전 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 및 고효율 모터, 인버터 적용 등 생산 공정의 에너지 효율화, 수소 에너지 등을 활용해 2045년까지 사업장 탄소중립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로드맵과 연계하여 차량 제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부터 우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소사회 구현과 연계하여 차량 제조 공정에 그린수소 적용과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차량운행 |

현대자동차는 차량운행 영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제네시스 100% 전동화 및 2035년까지 유럽시장 100% 전동화를 선언했으며, 2040년 내 주요시장의 모든 판매 차량 100% 전동화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럭 및 버스 등 상용차의 경우, 전동화 확대 노력뿐만 아니라 제품의 기술 및 상품성 강화를 통해 전동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상용차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통해, 2023년에는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국내에 출시했으며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트랙터'를 북미에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탄소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해양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상쇄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다숲 복원은 수온 상승 및 연안 난개발 등으로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어 생태계 훼손이 심한 지역에 해조류 식재 활동을 통해 탄소흡수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가치사슬 전반의 탄소감축뿐만 아니라 외부 감축사업을 통해 전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입니다.

모빌리티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과 책임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현대자동차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Green Plant
Green Solution
Green Chain

효성첨단소재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자 3대 기후경영 추진 전략하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분석하고 경영활동에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주)

본 페이지는 효성첨단소재(주)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Green Plant, Green Solution, Green Ch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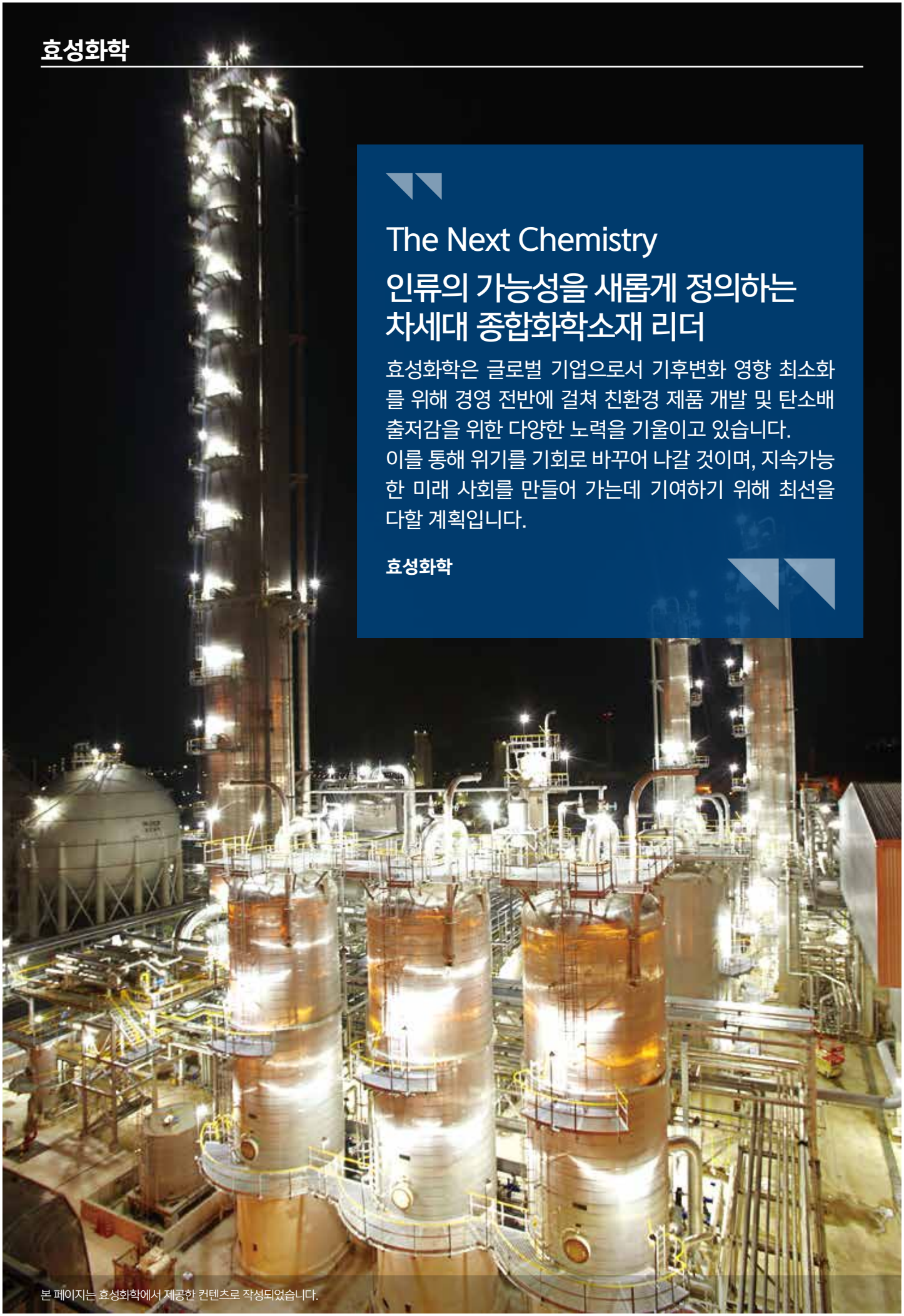
효성첨단소재는 기후변화가 지구 환경과 미래 세대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구 온도 상승을 1.5 ℃ 이내로 제한하는데 기여하고자 'Vision 2030'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과학기반감축목표(Science-based Targets, SBT)를 설정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SBT initiative 의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운영체계 구축 전략인 Green Plant,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의 제품개발 및 생산 전략인 Green Solution, 가치사슬 협력 전략인 Green Chain의 3대 기후경영 추진 전략하에 글로벌 전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협력사 및 고객사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망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가치사슬 전반의 기후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서 수자원 보존을 위해 사업장 내 수자원 재활용 및 인식 제고, 폐수 배출 과정에서의 환경영향 리스크 최소화, 생물다양성 보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독자기술 개발과 끊임 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 일류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소재기업으로서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Mobility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소재 경량화 및 고강도 특성 제품 개발, 친환경 기술력 확보를 통한 탄소 배출 절감 및 순환 경제 구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효성첨단소재는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와, 모든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The Next Chemistry

인류의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차세대 종합화학소재 리더

효성화학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영향 최소화를 위해 경영 전반에 걸쳐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효성화학

본 페이지는 효성화학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효성화학은 인류의 보다 나은 생활을 선도하고자 친환경 기술 및 제품 개발, Smart Factory 활용, '18년 탄소배출량 대비 '30년까지 14.5%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그린경영 Vision 2030'을 수립했습니다.

효성화학은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Poketone과 RCS(Recycled Claim Standard), USDA(미국 농무부) BioPreferred® program 인증을 받은 TAC Film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GRS(Global Recycled Standard) 인증을 받은 PCR-PP 및 PCR-PET 필름을 활용한 사업과 친환경 분야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각 사업장 별 효과적인 탄소배출량 모니터링을 위해 IT 기반의 탄소자산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전사 사업 추진방향, 투자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 내부탄소가격제를 시행 중입니다. 탄소배출량 및 절감량을 내부탄소가격으로 환산하여 경제성 평가에 반영합니다.

사업장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사용 중입니다. 인근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부터 폐기물 소각폐열 스팀을 공급받아 사용 중이며, 사업장 내 태양광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자체 사용 중입니다. 또한, 생산 관련 모든 자원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Smart Factory를 통해 최적화된 생산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산 수율을 높일 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를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산하에 ESG경영담당, 사업장별 공장장 및 공무/설비기술팀장으로 구성한 탄소배출저감TFT를 운영 중입니다. 기후변화 관련 법규를 공유하고, 신규 탄소배출량 감축안을 발굴 및 추진합니다. 앞으로도 효성화학은 그린경영 Vision 2030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활동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금융업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KB금융그룹

본 페이지는 KB금융그룹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ESG 위원회'를 신설한 이래, ESG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룹 차원의 ESG 경영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계열사들은 이사회 내 소위원회 형태, 경영진 협의체 등 자체적인 ESG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은 그룹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 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부배출량Scope 1&2은 2040년까지, 금융배출량Scope 3은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녹색금융 투자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 지원, 온실가스 직접 감축' 등 4가지 중점 추진 방향 아래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녹색금융 투자 확대를 위해 ESG금융상품 규모를 2030년까지 50조 원으로 확대하는 'KB Green Wave 2030'전략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50조원 중 환경 부분에만 25조원 규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PF 투자, 친환경 설비 전환을 위한 대출 공급, 고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다양한 산업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룹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ESRMEnvironmental and Social Risk Management)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과 같이 심각한 환경유해업종은 금융지원을 금지하고, 고탄소 기업들이 저탄소 비즈니스 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ESG컨설팅·자가진단 서비스, KB GreenWave ESG 우수기업대출 외 다양한 금융 지원 등 금융·비금융 연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KB금융그룹의 내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력사용 감축을 위한 전사적 캠페인 운영, 절전조명 교체 확대, 주요 사업장 및 연수원 등의 유휴부지/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확대, 기존 업무용 차량의 친환경 차량 전환 등 자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활동부터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밖에, KB금융그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넷제로 전환을 위해 출범한 NZBA넷제로은행연합 활동, GFANZ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문위원 활동, PRB Core Group 활동 및 PCAF KOREA 의장기관 역할 수행 등 금융기관들과의 활발한 논의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B금융그룹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경영체계를 확립하여 실질적인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아

기아는 범세계적 이슈인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과 사회가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2045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기아의 탄소중립은 Sustainable Energy, Sustainable Mobility, Sustainable Planet 세 가지 방향성 아래, 공급, 생산, 물류, 사용, 폐기 등 전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 Energy 친환경 에너지 전환 | 기아는 2040년까지 글로벌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자체발전, 중장기적으로는 PPA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합니다. 특히, 슬로바키아 공장은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하였으며, '23년에는 오토랜드 화성에 4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였고,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 Mobility 전동화 전환 | 기아는 2035년 유럽, 2040년 주요 시장, 2045년 글로벌 시장 100% 전동화를 달성하여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Sustainable Planet 자원순환 및 갯벌식생 복원 | 기아는 폐차 재활용률 제고, 폐배터리 재활용,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적용 확대를 통해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갯벌에 염생식물을 식재하여 탄소 흡수 및 저장 기능을 확대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기아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세계적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Sustainable Mobility Solutions Provider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아

본 페이지는 기아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을 모티브로 한 “Big Step for Tomorrow” 라는 ESG 비전하에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룹 내부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K-택소노미 기반 “ESG금융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금융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축된 “ESG금융 심사 시스템”은 ESG 금융 검토가 필요한 대상을 자동으로 판별하며, 이를 통해 K-택소노미 적합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모니터링 결과 등이 금융 지원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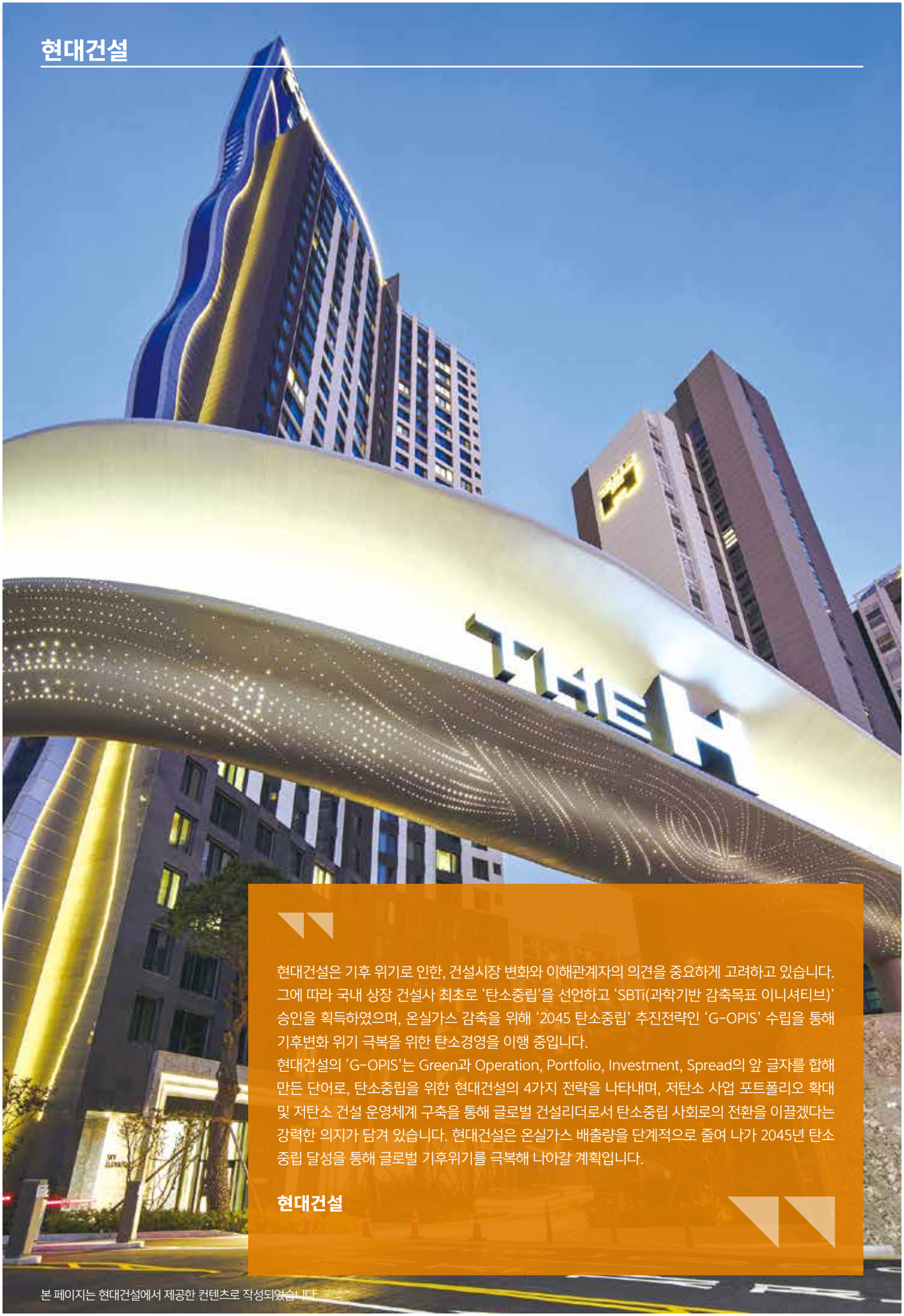
또한 하나금융그룹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생물다양성 영역에 관심을 갖고,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 대한 금융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 관련 이니셔티브인 TNFD(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와 PBAF(생물다양성 회계금융연합)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2024년 하나금융그룹은 ESG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탄소배출량 감축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룹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녹색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그룹

본 페이지는 하나금융그룹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기후 위기로 인한, 건설시장 변화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SBTi(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45 탄소중립' 추진전략인 'G-OPIS'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경영을 이행 중입니다.

현대건설의 'G-OPIS'는 Green과 Operation, Portfolio, Investment, Spread의 앞 글자를 합해 만든 단어로, 탄소중립을 위한 현대건설의 4가지 전략을 나타내며, 저탄소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및 저탄소 건설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건설리더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본 페이지는 현대건설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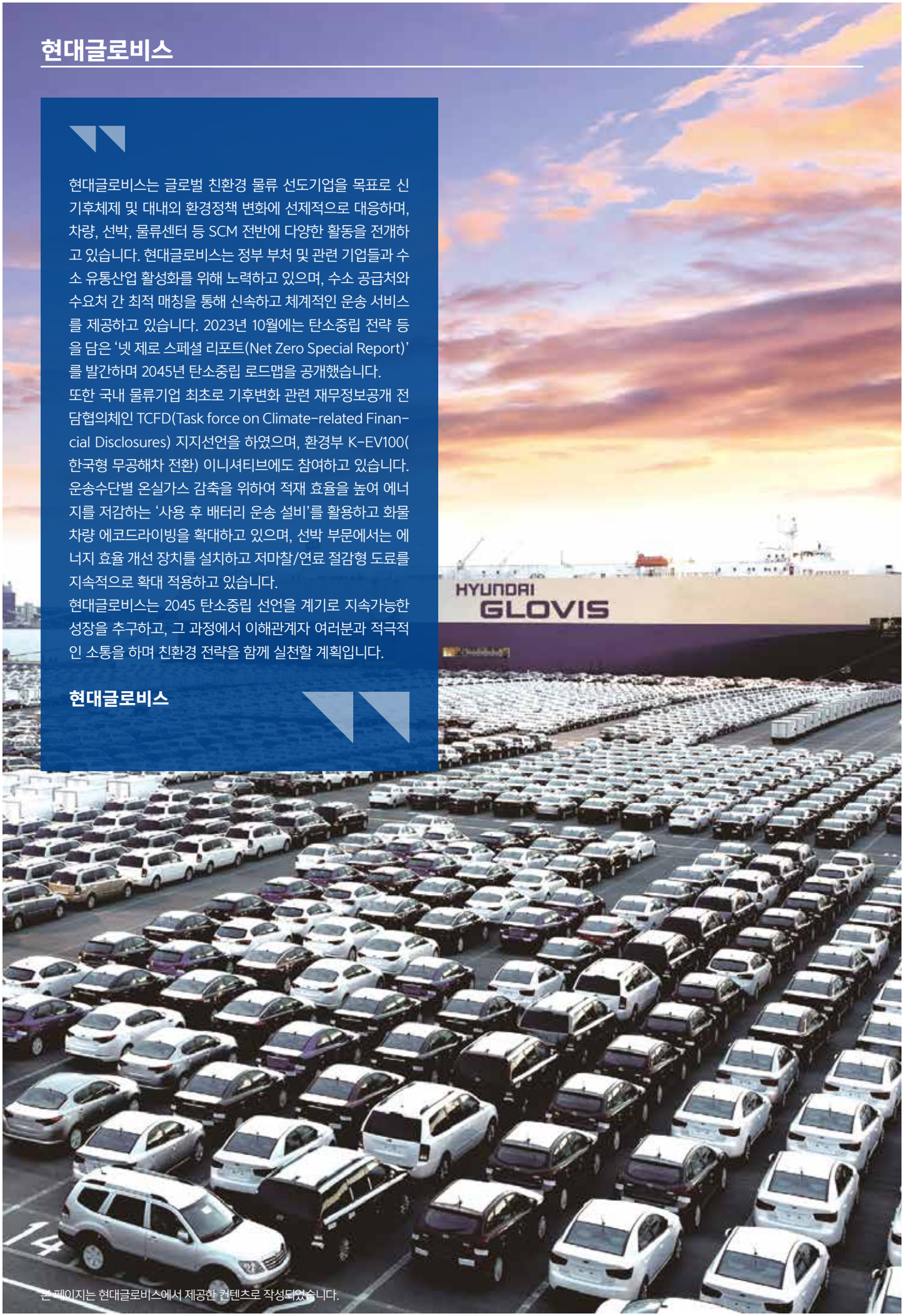
현대글로비스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친환경 물류 선도기업을 목표로 신기후체제 및 대내외 환경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차량, 선박, 물류센터 등 SCM 전반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업들과 수소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소 공급처와 수요처 간 최적 매칭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탄소중립 전략 등을 담은 '넷 제로 스페셜 리포트(Net Zero Special Report)'를 발간하며 2045년 탄소중립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전담협의체인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선언을 하였으며, 환경부 K-EV100(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이니셔티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송수단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적재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저감하는 '사용 후 배터리 운송 설비'를 활용하고 화물차량 에코드라이빙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장치를 설치하고 저마찰/연료 절감형 도료를 지속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2045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여러분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며 친환경 전략을 함께 실천할 계획입니다.

현대글로비스



본 페이지는 현대글로비스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현대로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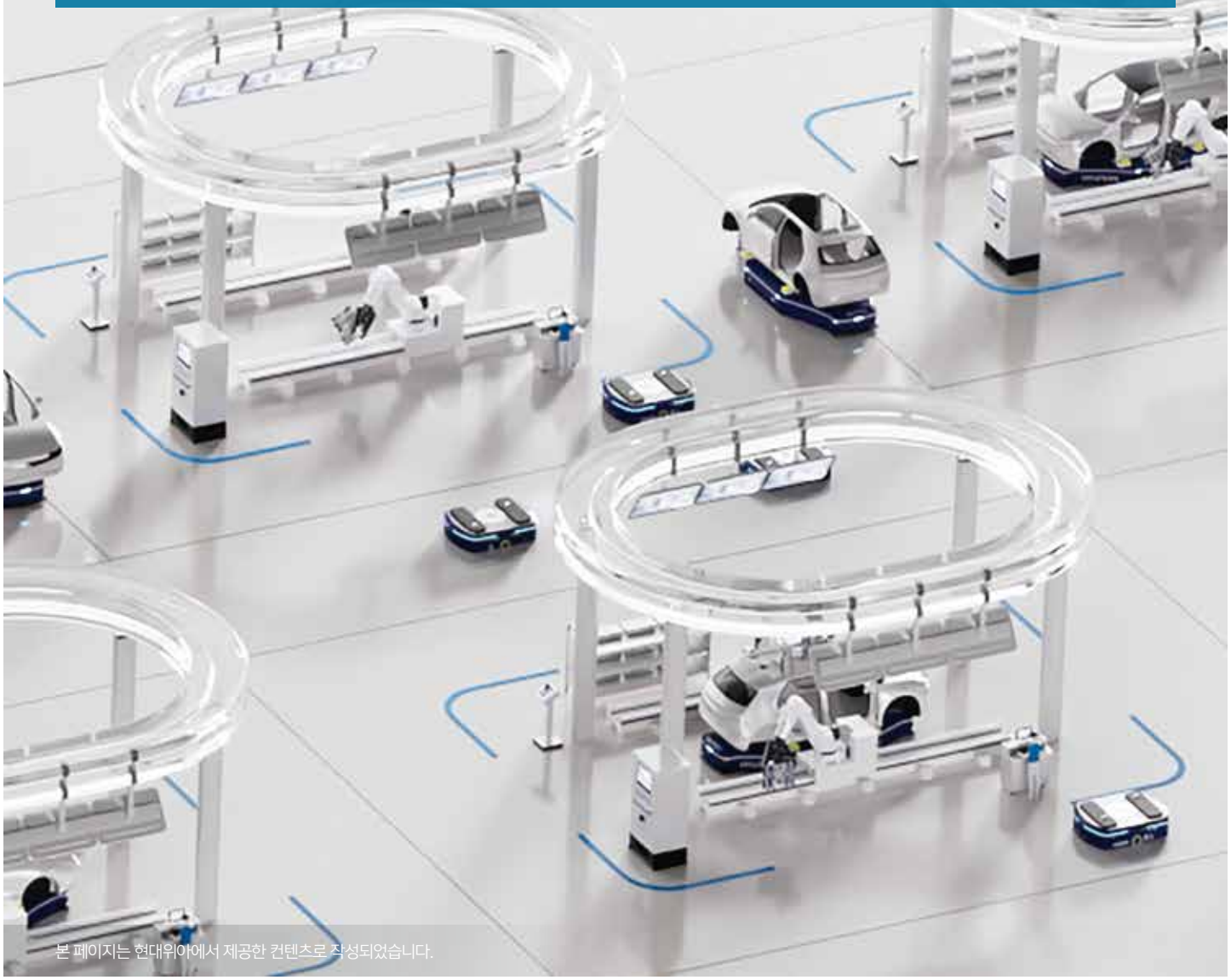
현대로템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에 동참하기 위해 2022년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현대로템은 재생에너지 도입, 그린 수소를 위한 공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 사용 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전동차, 친환경 제철 설비 등 기존 친환경 제품에 더불어 수소 트램 및 바이오 가스 수소 개질기 등 수소 기반 제품군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K-Taxonomy 기준 54%인 친환경 매출 비중을 100%로 확대 달성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친환경 제품을 기반으로 전 밸류체인에서의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저탄소 –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현대로템

본 페이지는 현대로템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현대위아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배출, 생태환경 훼손 등 사업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 복원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대위아는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되는 부품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 '냉각수 분배·공급 통합 모듈'을 개발하여 양산하고 있으며, 통합 열관리 시장을 선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종별 맞춤 전동화 토크벡터링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사업장 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수요자원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에너지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지난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량 대비 19,280tCO2eq 감축하였습니다.
현대위아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45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및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글로벌 RE100에 참여해 204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태양광 자가발전 설치 및 PPA 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큰 도로, 공장 인근의 학교에 숲을 조성하는 '현대위아 초록학교', 하천 정화 활동인 '1사 1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존 협약'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친환경 경영에 앞서는 현대위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위아



본 페이지는 현대위아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깨끗한 물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며, SK하이닉스는 수자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주변의 수생태계와 공존하기 위해 취수량 절감, 용수 재이용, 방류수 수질 관리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 관리정책으로는 용수 사용 절감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수자원 절감 리더십을 실행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자원 현황을 확인하고 수자원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을 엄격하게 관리 및 유지하여 지역 하천에서 식물, 포유류, 조류 등 다양한 종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도 탄소관리위원회, 기후변화협의체 등의 견고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RE100 목표 및 이행을 실천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감 TF 운영 및 Scope 3 가치사슬 배출량 관리를 위해서도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서 신설한 반도체 기후 변화 대응 컨소시엄 창립 멤버로 가입하여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리더십도 함께 실행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앞으로도 친환경 반도체 제조 프로세스를 정착시켜 건강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본 페이지는 SK하이닉스에서 제공한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About CDP

국내 CDP 서명기관[1]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BNK금융그룹
DGB금융그룹
JB금융그룹
KB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기업은행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스톤브릿지캐피탈
키움투자자산운용

1. 그룹,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순에서 가나다 순으로

CDP, 투자자 기반 전 세계 최대 환경정보공개 요청 프레임워크

CDP는 전 세계 투자 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국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대응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프로젝트이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740개 이상의 금융기관(운용자산 136조 (US달러))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총 19개 금융기관이 서명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CDP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위임을 받아 협력사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Supply Chain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34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국내기업에서는 8개 기업(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기아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삼성SDS, 현대자동차)이 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23,000개 이상의 기업이 투자자에, 20,000개 이상의 기업이 고객사에 CDP를 통해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CDP,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보공개 요청 기업 선정

CDP는 매년 일정한 타임라인으로 운영된다. 정보공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CEO와 작성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담은 서한을 발송한다. 정보공개요청의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은 CDP한국위원회가 시가총액,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2024년부터는 국내기업의 대상기업을 매출액 기준도 함께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CDP는 매년 업데이트되는 평가방법론을 공개하고 기업이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여 전 세계 기업의 점수를 공개한다. CDP 공시 평가를 받으려는 기업은 CDP가 공지한 응답 마감일까지 CDP 온라인응답시스템ORS를 통해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글로벌 평가 점수는 연말 CDP 공식 홈페이지www.cdp.net에 공개된다.

CDP 응답, TCFD에서 권고하는 공개내용 대응 뿐만 아니라 RE100, SBTi 등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보고 이용

CDP는 당해 주요 환경관련 동향을 반영하여 매년 질의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방법론을 업데이트하고 공개한다. 2018년부터 TCFD에서 권고하는 주요 환경정보 공개 내용을 포함하여 CDP 응답을 통해 TCFD 대응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CDP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족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RE100, SBTi 등의 운영 기관 중 하나로 기업은 CDP를 통해 참여 이니셔티브의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4 CDP 주요 일정

(아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월-1월	4월	4월(안)	6월	6월-7월(안)	9월	12월 (안)	1월 (안)
서명기관 모집	정보공개 요청서 발송 (CEO, 담당자)	Scope 3 교육	온라인 응답시스템 (ORS) 오픈	기후변화 및 물 경영 작성안내법 및 평가방법론 교육	응답 마감	글로벌 평가점수 공개	CDP Korea 보고서 발간 및 시상식

CDP Contacts

Sherry Madera
Chief Executive Officer

CDP Worldwide
4th Floor
60 Great Tower Street
London
EC3R 5AZ

Tel: +44 (0)20 3818 3900
www.cdp.net

CDP 한국위원회 Contacts (사무국: KoSIF)

장지인
위원장

양춘승
상임부위원장

이종오
사무국장

김태한
수석연구원

김정석
책임연구원

이다연
책임연구원

김현정
선임연구원

남나현
선임연구원

정유민
선임연구원

서승연
연구원

정병하
연구원

KoSIF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02
천마빌딩 707호
Tel: +82 (0)70 8821 2289

CDP 한국자문위원회

장지인
위원장
전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CDP Climate Change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유제철
전 환경부 차관

이병욱
전 세종대학교 교수
전 환경부 차관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

정석우
고려대학교 교수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

CDP Water

유연철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이길재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
전 수자원공사 부사장

정건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CDP 실무위원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

정해봉
에코프론티어 대표